

오디션 예능 ‘강자 3파전’…누가 웃을까

윤현준 PD ‘픽크타임’ 포맷 특화
팀별 경연·스토리텔링으로 승부
‘보이즈 플래닛’ 글로벌화 방침
익숙한 콘셉트와 진행으로 어필
한동철 PD ‘소녀판타지’도 가세
참가자·팬덤 직접 늘리며 공략

‘오디션 예능 강자’들의 3파전이 펼쳐진다. 새 케이팝 그룹을 만드는 MBC 오디션 예능프로그램 ‘소녀판타지-방과후 설렘2’(소녀판타지)가 30일 첫선을 보이면서 현재 방송 중인 엠넷 ‘보이즈 플래닛’, JTBC ‘픽크타임’과 경쟁을 벌인다. 심지어 ‘보이즈 플래닛’과 ‘소녀판타지’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50분, 밤 10시에 나란히 방송해 한판 대결을 벌인다. 이번 정면승부는 그동안 오디션 예능에 주력해온 제작진이 각기 다른 개성과 노하우로 팬덤 확보에 나서면서 경쟁의 열기를 키우고 있다.

● ‘소녀판타지’…찾아가는 팬 서비스

지난해 2월 종영해 7인조 걸그룹 클라씨를 내놓은 ‘방과후설렘’의 시즌2다. 엠넷에서 ‘프로듀스 101’(프듀) 시즌1, ‘쇼미더머니’ 시리즈 등을 제작해 서바이벌 오디션 장르를 유행시킨 한동철 PD가 연출한다.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방송 시기가 늦은 만큼 참가자와 팬덤과의 접점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송 전 참가자 55명이 부른 노래 ‘판타지’의 뮤직비디오를 지난달 27일 공개한 이후 ‘하이터치회’, 음악 프로그램 ‘쇼! 음악중심’ 등을 통해 팬들과 만났다. 제작진은 국내외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팬 투표



MBC ‘소녀판타지-방과후 설렘2’, 엠넷 ‘보이즈 플래닛’, JTBC ‘픽크타임’(위부터)이 나란히 오디션 서바이벌 포맷을 내세워 시청률 경쟁을 펼친다. 사진제공 | MBC·엠넷·JTBC

도 지난달 말 일찌감치 시작했다.

진행을 맡은 동방신기 최강창민은 30일 열린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 요소는 팬들과의 소통과 교감”이라면서 “프로그램의 핵심도 그룹 멤버를 직접 뽑는 시청자”라고 강조했다.

● ‘중고신인’ vs ‘글로벌 경쟁’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을 히트시킨 윤현준 PD가 기획한 ‘픽크타임’은 BAE173, 베너, BLK 등 무명 아이돌 그룹들이 재데뷔 기회를 잡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을 그린다. 개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그룹 단위로 경연을 진행해 눈길을 끈다. 제작진은 각 팀의 활동 비화 등을 토대로 한 스토리텔링 요소를 전면에 내세워 폭넓은 세대를 공략하고 있다.

최근 2차 글로벌 투표를 진행한 ‘보이즈 플래닛’은 엠넷 대표 오디션 예능인 ‘프듀’ 시리즈와 엇비슷한 콘셉트와 진행 방식을 내세워 익숙한 매력을 살렸다. 대신 글로벌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미국, 캐나다, 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다양한 국가에서 참가자를 받았고, 한국인과 외국인을 각각 K그룹과 G그룹으로 나누어 글로벌 경쟁 구도도 만들었다. 이미 성한빈, 석매튜, 나캄든, 김지웅 등이 두터운 팬덤까지 형성했다.

‘픽크타임’과 ‘보이즈 플래닛’은 기존의 오디션 포맷 팬덤을 끌어 모으면서 화제물이에도 성공했다. 굿데이티코퍼레이션이 29일 발표한 3월 4주차(20~26일) ‘TV·OTT 통합 화제성’ 비드라마 부문에서 MBC ‘나 혼자 산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 인기프로그램을 제치고 1, 2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이승기, 4년 만에 아시아 투어…7개국 순회



이승기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2019년 개최한 아시아 팬미팅 이후 4년 만에 아시아 투어를 시작한다. 30일 소속사 휴먼메이드는 “이승기가 5월 ‘2023 아시아 투어 콘서트 ‘소년, 길을 걷다’-Chapt 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이번 투어를 통해 국내는 물론 아시아 7개국을 순회한다. 5월 4일 링크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서울콘서트를 시작으로, 일본 도쿄와 오사카, 대만 타이베이, 필리핀 마닐라까지 총 4개국 일정이 공개됐으며 향후 일정은 이후 추가 공개된다.

마이클 패스벤더·정호연 나홍진 영화 합류



정호연

배우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그리고 할리우드 배우 마이클 패스벤더와 알리시아 비칸테르 부부가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에 출연한다. 30일 투자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영화 출연을 확정했다. ‘추격자’, ‘황해’, ‘곡성’ 등을 만든 나홍진 감독이 연출하는 ‘호프’는 고립된 항구마을 호포항에서 시작된 의문의 공격에 맞서는 주민들의 이야기다. 나 감독은 “누군가의 선의가 입장의 차이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는 사회 현상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창빈·현진·류진 ‘고액 기부자 모임’ 가입



류진

그룹 스트레이키즈 멤버 창빈과 현진, 잊지의 류진이 고액기부자 모임 회원이 됐다. 30일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마이스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 성금 각각 1억 원을 기부한 창빈과 현진, 지진 피해 이재민과 2022년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 각각 5000만 원을 후원한 류진이 ‘아너스 클럽’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고액 기부자 모임인 더프라마이스 아너스 클럽은 일시 및 누적 후원 1억 원 이상 후원했거나, 꾸준히 더프라마이스와 함께 희망 약속의 가치를 앞장서서 실천하는 후원자들의 모임이다.

아이콘·더보이즈 등 23개팀 ‘케이콘 재팬’ 출연



아이콘

아이콘, 더보이즈, 르세라핌 등 케이팝 대표 그룹들이 케이콘(KCON) 무대에 선다. 30일 CJ ENM에 따르면 ‘케이콘 2023 재팬’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다. 공연에는 에이티즈, 에이비식스, 엔하이픈, 잊지, 케플러, 니쥬, 스테이시, 비비지, 저스트비, 예나 등 총 23팀이 출연한다. CJ ENM은 공연에 대해 “음악과 문화를 융합한 정체성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케이콘은 3월 태국 방콕을 시작으로 5월 일본, 8월 미국 LA 등 다양한 국가 및 지역에서 케이팝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BTS 브랜드 평판 1위…임영웅·손흥민 순



BTS

그룹 방탄소년단이 그룹 활동 휴식기에도 스타 브랜드평판 1위를 차지하며 굳건한 인기를 과시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023년 2월 28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측정한 스타 브랜드 빅데이터 2억294만2304개를 소비자 행동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방탄소년단이 1위에 올랐다. 가수 임영웅과 축구선수 손흥민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완전체 활동 없이도 정상에 올라 눈길을 끈다. 현재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솔로 앨범 발매, 예능 출연 등 개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만형진이 입대했으며 제이홉이 2월 입영연기 취소 소식을 내고 입대를 기다리고 있다.

연예인입니까, 작가입니까? 네, 둘 다입니다

박상원·강승윤·송민호 등 개인전 화제 넘어 아티스티너 자리매김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미술, 사진 등 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아티스티너’의 활동에 더욱 시선이 쏠린다. 아티스티너란 예술(아트·art)과 엔터테이너(e ntertainer)를 결합한 단어로, 예술 작가로 활동하는 스타들을 뜻한다.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배우 박상원이 대표적이다. 박상원은 4월 8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E.K.아트갤러리에서 초청 전시 ‘어 모놀로그, 어 섀도

우 앤드 어 신’을 연다. 그는 2008년부터 6차례 전시회를 연 그가 해의 전시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전시에는 신작을 포함해 약 60개 작품이 걸린다. 박상원은 사진 활동을 위해 2019년 상명대에서 비주얼 저널리즘 전공으로 예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그를 위너의 리더 강승윤은 최근 서울 성수동 스타트 플러스에서 문을 연 첫 사진전 ‘하늘 지붕’을 4월 19일까지 공개한다. 전시를 통해 고향인 부산의 풍경 등 자전적인 이야기를 흑백으로 담은 사진들을 선보이고 있다. 2021년 ‘코리아안 아이: 창조성과 백일몽’과 지난해 ‘스타트 아트페어

서울 2022’에도 참여한 그는 작가명인 ‘유연’이란 이름으로 개인 전시를 준비했다. 또 다른 멤버인 송민호도 미술작가로 활동하면서 지난달 첫 개인 전시를 열었다.

최근에는 아티스티너의 활동 영역이 방송가로 확장돼 눈길을 끈다. 미술작가로 활동한 합창단으로 다이나믹듀오의 멤버 개코가 미술 소재를 예능 포맷에 끌어들이는 KBS 2TV ‘노마니 노아트’에 출연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미술작가들이 펼치는 드로잉 쇼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연출자 김태준 PD는 30일 “최근 다양한 기획 전시가 늘어나고, 세계적인 아트페어



배우 박상원, 그룹 위너 강승윤(왼쪽부터) 등이 사진전을 열고 ‘아티스티너’로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사진제공 | 박현남공연제작소·스타트아트코리아

가 서울에서 열리면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미술에 대한 호기심이 커진 분위기”라면서 “개코를 비롯한 아티스티너들이 대중과 예술의 매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봄바람 타고 ‘BL 로맨스’ 사랑살랑

안방극장과 스크린에 ‘BL’(보이즈 러브) 콘텐츠가 넘쳐난다. ‘봄은 로맨스의 계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남성 동성애 코드를 전면에 내세워 로맨스물의 빈자리를 가득 채운 분위기다.

17일부터 공개 중인 그룹 B1A4 공찬과 차서원이 주연한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비의도적 연애담’은 누리꾼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뜨거운 인기를 얻으며 BL콘텐츠 대중화의 일등공신로 평가받은 왓차 ‘시맨틱 에라’를 이을 조짐이다.

천재 도예가(차서원)와 그에게 본심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대기업 총무과 직원(공찬)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는 세 에피소드가 공개될 때마다 각종 SNS와 온

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며 팬덤을 형성했다.

티빙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하이 라이트 장면과 비하인드 영상도 수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배우들과 함께 3·4화를 함께 보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으며 다음 달 7일에도 5·6화 함께 보기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룹 오메가엑스의 멤버 재한과 예찬이 주연한 웹드라마 ‘소년을 위로해줘’도 눈길을 끈다.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양국 특기생과 비밀을 지닌 반장의 로맨스를 담은 드라마는 15일부터 왓차, 웨이브, 티빙을 통해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를 공개하고 있

다. 왓차에서는 많이 본 콘텐츠 순위 1위를 기록 중이다.

대학 캠퍼스를 무대로 한 BL영화 ‘여덟 번째 감각’도 29일 개봉해 관객을 만나고 있다. 메가박스 단독 개봉으로 전국 80개에 불과한 스크린에 전체 극장의 0.8%의 좌석밖에 확보하지 못했으나 판매율은 전체 7%가 넘는다.

영화를 향한 남다른 관심에 개봉에 앞서 프리미어 시사회에서 백인우, 베르너 두플레시스 감독과 오준택, 임지설 등 주연 배우들의 사인회를 진행했으며 다음 달 1일에는 퇴장하는 관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하이터치회를 진행한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30일 “확실한 마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비의도적 연애담’, 영화 ‘여덟 번째 감각’(왼쪽부터) 등이 남성 동성애 코드를 팬덤 공략에 나선다. 사진제공 | 티빙·플레이그림

니아 팬덤이 존재하는 BL물은 적은 제작비에 비해 수익이 크다”며 “한국 BL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졌고, 해외 판매도 증가해 BL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 역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